

봉축사 영상메세지

오늘은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걸으신 일곱 걸음은, 모든 인류에게 크나큰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서로 대립하고 살아온 70년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되는 일심으로, 공존과 상생 그리고 합심하여 서로 화합하는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남북이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습니다. 지구촌 모든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큰 슬픔에 처해있는 नेपाल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입니다. 어서 빨리 절망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온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한 생각은 미래 후손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며, 자애로운 지도자가 많은 사회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평화로운 마음과 향기로운 마음이 가득하여 건강과 행복이 향상하기를 축원합니다.